

사업보고서 늦어도 징계 안한다

**금융위, 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
지연 제출 우려 기업·감사인들
28일부터 금감원 등에 심사신청
통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해도 관련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렵다면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본지 2월26일자 1면 참조〉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이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 감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

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 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시장 성장주 주목 낙폭 과대주 옥석 가려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를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주가 급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인 수혜가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락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면서도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급리인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져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로 할인율도 낮출 수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당초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4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번 급리인하 이후에도 0.75%까지 낮아질수 있다는 기대가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중국은 금융당국이 빠르게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서며 코로나19로 인한 낙폭을 줄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으로 경기 둔화를 완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준비한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성장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매수세에서도 포착됐다. 포착됐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코스피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러나 코로나 쇼크로 장세가 출렁였던 최근 3거래일(24일~26일)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나 코스닥 시장에선 20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4% 가까이 급락하며 2070선까지 떨어졌던 24일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42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등이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을 주로 담았다. 외국인인 3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4위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알테오젠,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증시 조정은 중장기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를 저점 매수할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업종별 수익률 격차 확대를 높였던 반도체와 IT(정보기술) 중심의 주도주 양상도 여전히 전망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업종 등락은 혼조세를 보이겠지만 정부 부양책과 내수 촉진책에 따라 낙폭이 과대한 유통·내구 소비재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IT 부품 등 중간재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송태화기자 alvin@

KRX, 코로나19·총선 관련 테마주 집중 감시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종목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탐지 목적**

한국거래소(KRX)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21대 총선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6일 2020년 주요사업 계획에서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 탐지해 신속하게 적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감위는 현재 40여개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이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한 기업이 대상이다. 거래소 측은 사이버 감시와 불건전 주문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장정보발동 및 투자유의안내 등의 예방활동을 통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종목은 신속하게 거래분석과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총선 때마다 반복됐던 정치 테마주도 집중 관리한다. 시장 내 각종 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 관련 종목을 기획 감시해 공매도 및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안내, 사이버유의사항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산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해 종목 간 연계감시도 병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사냥형의 단계별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한 후에 필요할 경우 즉각 심리착수와 신속 혐의 확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감리제도를 정비해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올해 감리적출기준, 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관련 기준들의 연계성과 현행 기준상 적출의 적정성·유효성 등을 정비한다.

또한 감리 예고 주기 명확화, 회원의 조치내용 보고의무 도입 등 회원사 대상 감리예고 제도 개선, 제재 관련 사항의 공개범위 확대, 제재금 부과간 단 순화 등 회원제제 프로세스도 개선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하나머니로”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하나머니'로 바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머니'로 하나멤버스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손님들은 별도로 하나금융투자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전 절차 없이 하나머니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신규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3월 31일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미래에셋자산운용, 첫 리츠 상장 추진

‘맵스리츠 1호’ 국토부 인가 획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맵스리츠 1호)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맵스리츠 1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립한 첫 리츠다.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복합건물 광고센터얼프르지오시티 내 상업시설에 투자를 한다.

광고센터얼프르지오는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로, 이 가운데 상업시설 면적은 8만6천190㎡ 규모다.

향후 약 15년 동안 책임 임대차 계약

과 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 연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광고센터얼프르지오 상업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금액은 약 2800억원으로 미래에셋대우가 후순위 담보대출 등으로 최대 102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송태화기자

‘포레나 부산 덕천’, 사이버 견본주택 대체

한화건설,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초 분양 예정인 '포레나 부산 덕천'의 견본주택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3월 초 분양 시기에 맞춰 포레나 부산 덕천 분양 홈페이지 내 구축되며 VR(가상현실) 촬영 화면을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는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당첨자 발표일까지 운영하지 않고 정당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 관람시 감염 예방을 위해 서류제출 기간과 지정계약기간 내 예약방문제를 시행하여 견본주택 방문 인원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포레나 부산 덕천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7-12번지 일원(덕천 2-1



한화건설 '포레나 부산 덕천' 조감도.

구역)에 들어서는 재건축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36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분양분은 294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포레나 부산 덕천은 3월 초 분양 예정이며 세부적인 청약 일정은 추후 분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